바오로가족에게 드리는 메시지

친애하는 형제 자매들께,

이 며칠 동안 저희는 9 차 총회의 주제, "받은 선물을 되살리십시오. 바오로 카리스마 백 년에 대한 창조적 신뢰"를 통해 바오로인의 정체성에 대해 숙고하였습니다. 저희는 더 나아가 바오로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만한 부인가에 대해서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기도, 동반이 저희들이 일하는 동안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또한 이 세상에서 형제 자매로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크고 작은 체험들도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저희들은 우리 아버지이신 창립자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의 계획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걸어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음도 깨달았습니다. 알베리오네 신부님께서는 오십 년 전 이곳 아리챠에서 첫바오로인들에게 하신 한 달 동안의 영신 수련 동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섭리가 성바오로수도회 곁에 (각자의 통치, 규범, 경영 및 특별한 사도직을 가진 바오로가족의 여러 수도회가) 태어나도록 하셨"음을 인식하셨습니다. 복자 알베리오네께서는 "(바오로가족의) 모든 수도회는 함께 바오로 가족을 이루며 공통의 기원을 갖는다. 모든 수도회는 공통의 영을 가지며 하나로 집중되는 목표를 갖는다"(UPS, 3, 185)고 재확인하십니다.

바오로 재속회의 형제 자매 여러분에 대하여 저희는 바오로가족 안에서 갖는 여러분의 특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여러분이 성바오로 수도회에 "속하는 존재"라는 데 대해 저희의 책임을 새롭게 인식하였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여정을 다듬어 가고 싶습니다.

저희는 또한 바오로 가족의 사명 안에서 평신도의 소명을 받은 바오로협력자회의 회원들을 두고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협력의 정신과 열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오 가족수도회의 총원장들은 2014 년에 "바오로가족 백주년"을 함께 기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백주년의 기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주님께서 우리 창립자를 통해 원하셨듯이 바오로가족이라는 카리스마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며,
- 우리 사도직들의 보완성 안에서 사도적 협력을 시작하여,
- "하나의, 완전한 새로운 복음화 계획"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그리하여 공통되는 뿌리와 영성으로부터 출발한 바오로가족이 알베리오네 신부님께서 참으로 원하셨던 목표들의 집중에까지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여정 동안 우리를 동반하시어 창립자에 대한 창조적 신뢰 안에서 우리가 매일 조금씩 진보하도록,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함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능력을 주시기를 빕니다.

2010 년 5 월 14 일 아리챠(로마)

성바오로수도회 9 차 총회 대의원 일동

IX CAPITOLO GENERALE
Casa Divin Maestro - 00040 ARICCIA - Tel. (39) 06.93.48.61
capitologenerale@paulus.net - www.paulus.net/cg2010